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금속노조, 현대重그룹 · 대우조선 EU 기업결합심사에 개입…영향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위원장이 최근 EU(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로부터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3자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알려짐. 그러나 '제3자 지위'는 EU에서 양사의 기업결합심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보도됨. (뉴스1)

Competition hots up as engine designers adapt for future fuels

MAN과 WinGD가 가스추진 엔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됨. MAN사는 M-type electronically controlled gas-injection(ME-GI) 추진 시스템을 개발했고, WinGD사는 two stroke, low-speed 추진 시스템 X-DF를 개발했다고 알려짐. Qatar Petroleum이 발주할 LNG선을 두고 두가지 방식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Adnoc set to retender huge Abu Dhabi offshore sour gas project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Adnoc)가 수 주 내로 15억달러 이상 규모의 Dalma offshore sour gas 프로젝트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관계자들에 따르면, 곧 사전자격심사를 거친 계약자들을 초대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Adnoc는 올해 초 해당 프로젝트 관련한 2개의 핵심 EPC 계약을 취소한 바 있음. (Upstream)

세진중공업 LNG 운반선용 화물탱크 초도품 출하

세진중공업은 24일 울산 본사 선적장에서 지난해 8월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수주한 3만m³급 LNG 화물 탱크 초도품에 대한 출하 기념식을 했다고 보도됨. 이번에 제작 공급하는 LNG 화물 탱크는 노르웨이 국적의 크누센(KNUSEN)사가 현대미포조선에 발주한 것으로 알려짐. (뉴시스)

Charterers begin to gain upper hand as VLCC rates plunge 30%

아시아지역으로 향하는 VLCC(초대형유조선) spot 운임이 약 28,000달러/일(-30%)정도 하락했다고 보도됨. 한 달 전 운임 대비 -45% 하락했으며, 수에즈막스탱커의 경우 -21% 하락한 5,113달러를 기록했고, 아프라막스탱커는 3,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현대일렉트릭, 한전과 차세대 전력시장 공략

현대일렉트릭은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가스절연변압기 예방진단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현대중공업 그룹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이 한국전력공사와 예방진단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세대 전력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보도됨. (아이뉴스24)